



통권 143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3. 9. 17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 평양에서 있었던 '2003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참가했던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8월 17일 양각호텔에 찾아 오신 6명의 송환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짧았지만 뜨겁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난 9월 2일 정동 프린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3돌을 맞아 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가 열렸습니다.

• 목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달의 시 김남주 • 5 / 출소양심수를 찾아서 김현희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 6 /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이덕용 학생 • 9 / 회원여름수련회 참기기 심주이 회원 • 10 / 논단·진보의련사건 전현준 진보의련 사무처장 • 13 / 성명서/비전향장기수 송환 3돌기념 및 2차송환 촉구대회 • 16 / 평양 8·15 민족대회 보고 이기우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 18 / 이런 회원 김미성 간사 • 21 / 나의 삶 나의 일터양계숙 회원 • 23 / 시시만화 • 25 / 슬픈 일이 있었어요 • 26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8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전쟁위협 군사훈련에 맞선 반전평화 시위는 정당했다

- 미 공병단, 스트라이커 부대 반전시위 구속자를 무죄 석방하라 -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9월5일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천대엽 판사는 7월15일 을지로 5가 미공병대에 들어가 반전시위를 하며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대 유선민 학생에게 외국국기 모독죄 등을 적용시켜 단기 6월에 장기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 이동현 학생에게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남은 네 학생에게는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실형선고를 하면서 '치외 법권 지역인 외국군 부대에 들어가 외국국기를 불태운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 및 해당 국가와의 선린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뒤 유사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이 군사훈련장에 침입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등 이 사건으로 야기된 법질서 경시의 여파가 더욱 악화 일로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 이유는 이보다 앞서 재판부가 말했던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학생들의 열정과 순수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모순을 범하고 있었다. 12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존중과 평화애호적인 외국공관에 들어가 선린관계의 상대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나 설득력이 있지 우리민족의 공멸을 가져 올 전쟁책임을 벌이고 있는 일방적인 군사 패권주의에 맞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애국학생들의 의료운 행동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판부가 말하고 있는 법질서란 무엇인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데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전쟁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된다. 전쟁을 막는 일은, 더구나 부당한 침략전쟁을 막는 것은 속된 법질서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외면한 채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잘못된 질서만을 중시하는 형식논리에 빠져 정의와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재판부가 일별백계로 유죄판결과 실형선고를 했지만 그에 두려워 불의와 모순을 외면할 애국청년 학생들이 아니다.

8월 7일 애국학생들의 미공병대와 미8군 사격장에서의 반전시위는 결코 감정적 민족주의나 무조건적 반미주의에서가 아니었다. 정의 평화에 대한 인류 보편가치를 지키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족적 양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대학생'들은 바로 그러한 민족적 양심의 실천가들이었다. 그들은 스트라이커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군 영평사격장(로드리캐스 사격장)에 맨 몸으로 들어가 '한반도 전쟁책동 미군 부대 즉각 철수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반전평화 상징의식으로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들은 또한 미군 장갑차에 올라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실히 표현하고 있었다. 왜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반전평화 시위를 벌였는지 그들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학생들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을 복침훈련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 범죄적 훈련을 지켜보면서 비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군기의 폭격훈련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죽은 말 못할 고통이 얼마나이고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이 땅 민중들이 50년 동안 죽었던 좌절과 분노가 얼마나였으며 온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중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죽어 갔느냐'고 묻고 있었다. 학생들은 '스트라이커 부대가 창설되고 첫 훈련지로 바로 이 땅에서 실제상황과 똑같은 훈련을 통해 한반도 지형과 상황을 익히려

하는 것은 바로 미군 전술의 첫 시험장이며 이 땅의 민중이 첫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오만한 경고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장했다. ‘이 땅의 청년 학생들은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북침전쟁 연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 전투기가 우리 민중의 머리 위에서 포탄을 퍼붓고 동족을 학살하기 위한 훈련을 눈뜨고 지켜보지مان은 않을 것이다’ 라 했다.

학생들도 주장했듯이 스트라이커 부대는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편성된 첨단기갑부대였다. 이 부대는 장갑차를 공군수송기로 날라 세계 어느 곳이던 96시간 안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배치기갑부대이고 창설되고 첫 훈련지로 바로 우리 땅을 선택했다. 지난 7월 31일 경기도 오산 비행장에 도착 하여 곧바로 미8군 사격장 훈련에 들어갔다. 왜 제 땅에서 훈련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남의 땅 그것도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이북을 자극하고 남북 7천만 민족 모두에게 전쟁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단 말인가. 이미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이라 하고 핵선제 공격을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한강이북에 있는 미2사단을 비롯한 육군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동배치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앞으로 5년 동안 110억 달러에 이르는 전력증강계획도 마련했다.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GDP 대비 3.2%까지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고 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롯한 휴전선 부근 지역부대 배치를 남한군에게 넘김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총일발이 노릇을 하게 하며 저들은 미사일과 폭격기로 우리 국토를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그 뿐인가 2001년 10월 부시 행정부는 이북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할 목적으로 지하 목표물 파괴 보고서(HDBT)를 의회에 제출했고, 2002년 1월 다시 핵무기 태세 재검토 보고서(NPR)를 또한 의회에 제출함으로서 이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까놓고 말해오고 있었다.

2002년 11월 럼스펠트 미국방장관은 핵실험재개 필요성을 주장했고, 2003년 4월 로스앨리모스 리버모서 연구소는 핵무기 디자인 개발에 착수했다. 같은 해 5월 미상원은 고강도 지하 목표물 파괴용 핵무기(RNEP) 연구계획을 승인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미국의 대북 핵선제 공격의 프로그램임에 틀림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7.30.)’는 미국방부는 이북을 봉파시키려는 작전계획 5030을 군사령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었다. 이 새로운 작전계획은 기존의 5026이나 5027에 들어 있지 않는 전술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RC-135 정찰기를 이북영공에 최대한 근접 접근시켜 이북 전투기의 긴급발진을 유도, 부족한 항공 연료를 소진케 하고 불시에 1주일 기간의 군사훈련을 벌여 병기 예 투입된 인민군이 비축식량과 다른 군수물을 써버리게 하여 이북의 재정망을 교란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시간에도 미국과 그 추종자들은 분명히 이북을 겨냥한 이른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해상 훈련을 자행하고 있다. 미 해군은 또한 동해에서 이북 잠수함을 겨냥한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미 해군소식을 인용 보도했다. 2달 예정으로 실시할 잠수함 탐지 훈련에는 기존의 P-3 오리온 해상 초스페트럼 장치(LASH)라는 최첨단 장비도 투입할 것이라 했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영평 사격장 훈련은 바로 이 같은 미국의 대북 핵선제 공격의 사전준비였다는 의심 할 여지가 없었다. 유엔 결의없이 이라크에 대한 강도적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국이었다. 진짜 악의 축인 미국의 이 같은 전쟁 계획에 현 정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가. 한·미 정상회담 뒤 일관되게 애매모호한 방관자가 되고 있지 않았던가. 따라서 오만한 군사패권자의 경거망

동을 그대로 둔다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니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은 터이었다. 실제로 베이징에서의 6자 회담을 앞두고도 미국은 8.18~20일까지 남쪽땅 전역에서 국군 8,000여명, 주한 미군 및 팜, 오키나와, 미국 본토 등에서 온 미군 6천 500여명 등 14,500여 명력이 참가하는 을지 포커스 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훈련에는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생화학 테러 대비 훈련, 남해에서 공중, 지상, 해상 합동 훈련인 국지도발 대비 훈련, 거제·고성·통영에서 중요시설 방호 및 소규모 은밀 침투 대비 훈련, 창원·김해·밀양 등지에서 가상 적기 및 적의 공중 낙하에 따른 격멸작전 인 대공중작전 등이 펼쳐진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전쟁계획에 두 손 놓고 있었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에 항의는 그만 두고 국민에게 알리기조차 않았다. 여기에 ‘스트라이커 부대의 전쟁훈련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반전평화 시위를 벌인 것은 그들이 우리 민족이라면 당연한 일이었다. 바로 불난 집에 불을 끄러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이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지 않고 유리창을 깨며 집안으로 들어가듯이, 학생들은 재판부에서 말하는 그 무슨 치외법권 영역이니 하는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집이 다 타고 나면 주거권도 침입죄도 쓸모 없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핵전쟁으로 쑥발이 되었을 때 그 폐허의 땅에서, 주인도 없는 땅에서 12단독 재판부가 밀하는 법과 질서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학생들이 맨주먹 맨몸으로 반전평화시위를 한 것에 대해 공안당국은 무슨 큰 죄인이 되는 듯이 강제 연행하여 구속 기소했다. 보수 언론은 왜곡보도로 야단법석이었고 한나라당 등 보수 냉전세력들은 자기조국이 침략이라도 당한 것처럼 홍분하고 있었

다.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한국당국에서 법률위반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처벌’을 강요하였고, 리언 러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은 김희상 청와대 국방 보좌관과 김종환 합참의장에 항의 전화를 하며 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굳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대처와 재발방지를 말했고 고건 총리는 국정현안정책 국정회의에서 이 사태를 ‘이적행위’로 규정,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강금실 법무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잇달아 나서 심지어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말까지 하고 있었다. 참으로 주권국가 고위 공직자들의 행동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학생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위에서 말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절박성 때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 말고는 어떠한 파괴 행위나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맨몸으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오직 전쟁을 막겠다는 애국충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었다. 또한 미국에서도 월남전쟁에 반대하며 성조기를 태웠으나 최고 재판부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물며 남의 땅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의 국기를 태운 것이 무슨 국기 모독죄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미군부대에서의 반전평화시위는 정당했다.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반전평화시위 관련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중단하라.

정부는 굴욕적인 대미 굴욕 외교 중단하고 민족이익에 앞장서라.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하고 수배 조치 해제하라. 🚫

농부의 일

김남주

지난해 이맘때
천 리 길 널 찾아 내가 왔을 때
바라보는 들판 황금물결이더니
털고 보니 털리고 빈 마당이더구나
내 가슴 빈 곳간이구나

이 가을 다시 와서
저만치 서 있는 네 얼굴
가득 찬 수심이구나 네 손등
짝짝 벌려진 가뭄의 손바닥이구나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여전히 들판은 황금물 결이건만
우리 형제 병어리 냉가슴이구나

아우야 차라리 뜨자 이 들판
똥값보다 못한 토지야
드는 가뭄 들지라도 한 십 년 들어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바위산이 되게 하자
아우야 차라리 뜨자 이 마을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십 년 와서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십 년 와서
잡초로 무성한 폐허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우리네 들판으로 하여금
더 이상 도시의 곡물지대가 되도록 하지 말자
그리하여 우리네 마을로 하여금 더
더 이상 도시의 상품 시장이 되도록 하지 말자
그리하여 우리네 아들딸로 하여금
이 세상 잘난 놈들의 값진 고용살이 되도록 하지 말자

네 재주 밭갈아 씨뿌리고 김매는 재주밖에는 따로 없다면
기어이 흙으로 살아 토지로 일어서고 싶다면
죽여라 먼저 놀갈아 물대어 모내기 전에
물속에 숨어 물에 잠긴 네 허벅지를 뺏고 있는 거머리를
뽑아라 먼저 물 빼어 거름 주고 김매기 전에
벼 속에 살아 기생충처럼 벼를 헤치고
가뭄이 드나 수해가 드나, 풍년이 드나 흉년이 드나
논가운데 우뚝 솟아아, 태평 태평평평성대를 노래하는
꾀괴괴괴를 먼저 뽑아 벼려라



▶ 이 시는 지난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와 농·수산물 수입개방 반대투쟁 도중 지결하신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는 뜻에서 고른 시입니다.〈편집자 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걷는 길

김현희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지난 9월 3일, 연세대에서 '미 공명대/스트라이커 투쟁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원영만 위원장님을 뵈러 쫓아가 반나절을 함께 다녔고 강원도 철원의 맥에 전화 인터뷰까지 하고 나서 이리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는 동지적 부부를 알게됨에 이 필자는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날, 연세대에서 영등포로 따라 갔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마침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긴장이 감돌고 있더군요. 입구 계단을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고,

길가에는 전경들이 늘어서 있는 그런 광경… 그 와중에 점심으로 올갱이 된장국까지 얹어먹고서야, 드디어 전교조 위원장실에서 조용히 대면할 수 있었는데 위원장님을 찬찬히 보아하니 먹물 옷을 입었으면 영락없이 스님으로 보일 그런 풍모였다고 하면 실례가 되려나요?

위원장께선 7월 15일 구속되어 8월 21일 보석으로 나오셨는데 지난 1학기 동안 내내 뜨거웠던 교육개방 반대, 네이스 폐기투쟁, 반전평화 수업, 그리고 연가투쟁 등등과 관련된 그림직한(?) 죄목들에 '폭력' 까지 덧붙여져 있기에 의아해 했더니, 그건 동국대에서 집회를 한 건데 '무단침입'이라고 갖다 붙인 거라 합니다. (어이없기는 이번 정권의 관료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 옥살이

무심코 "옥살이는 처음이신 거죠?"하고 물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십니다. (나 양심수후원회 회원 맞아?) 맨 처음 전교조 결성 당시에 110일 간의 감옥살이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또 다시 옥살이를 하시게 되니 세기가 바뀌어도 참교육의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라고 나 할까요? 그렇지만 위원장께서는 옥에 있었던 기간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연수기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옥에서 나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계획을 여쭤보았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연가투쟁에 관한 징계에 대한 항의이고, 앞으로 매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열릴 네이스 반대 촛불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 주도로 '정보인권'을 세워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질 것이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약점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라는 발상 자체가 인간 삶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위험한 인권유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사들의 비판 발언을 제약하겠다는 의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인권적인 교칙

과 학칙, 비인간적인 입시제도 아래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인간이 사라진 기계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언론보도를 보면 구체적 사실과 진실에 바탕한 보도를 한다기보다 교원 단체간의 감정 싸움을 부각시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에 있어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반인권행위라는 것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합원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WTO에 교육개방양허안을 낸 4개국에 한국정부가 포함되었고, 교육국제화특구를 만들겠다는 등 경제논리에 매몰된 시각을 드러내자 실망이 커지게 되었고, 네이스 문제만 해도 5월 26일 정부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6월 1일, 교육부가 그걸 뒤집는 번복 발표를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자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중운동진영의 힘이 커지자 수구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나대고 있지만 우리 민중세력은 부문별 조직 역량을 결집해 전체적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안주해 왜곡된 자본경제와 국가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못 보아서는 금새 전망 부족에 봉착하게 된다고요. 정치 민주화는 사회 민주화, 교육 민주화와 직결된 문제이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신이 놓인 삶의 조건, 사회경제적 입장에 바로 보는 의식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현실에 뿌리박은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어떤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내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교조도 앞으로 실질적 역량을 높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실천을 해나갈 것이라 하십니다.

주말부부? 이산가족!
서방님을 길 위에 내어놓고서…

취미나 관심사를 여쭈어보다가 위원장께서 ‘전업주부를 해도 될 만큼’ 요리 실력이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가지조림이나 가루웃 입힌 풋고추찜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가정 안에서 양성평등을 어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철원 맥에 장거리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에 계실 때 편지를 몇 통이나 쓰셨냐고 했더니 매일 써서 내보낸 옥중서신이 30여 통이 되는데 그 중 맥에 보낸 건 3통이라 하십니다. 주로 밖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게 보냈고 우리 정부에 석방탄원서를 보내온 국제교원노조(IE)에도 답장을 쓰시고 그랬더는데 그건 공문서(?)라고나 할까, 사문서(!)는 겨우 3통이었네요.

부인께서는 서방님을 일려 처음부터 같은 길을 함께 걸어온 ‘평생동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위원장께서 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동료들로부터 “서방 옥에 두고 좋아하나? 슬픈 척이라도 해라.” 그런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 가려줄 지붕도 있고,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오히려 덜 불안했다고 하니 그동안 겪어온 일이 어땠을까요? 아무튼 예상보다 일찍 나오시게 되어 이번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위원장께서 춘천 지부장을 맡아 4년 상근하시는 동안 부인께선 철원에서 저희 일을 하시며 떨어져 살았는데 그 4년만 지나면 같이 살자고 철썩같이 약속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뒤 위원장 후보로 추대되니 집에 오셔서 뭔 말을 못하시고 맥에는 이메일로 알리셨다 합니다. 그러자 부인께선 “처음 결혼할 때 ‘평생동지’로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 위원장 후보로 추대된 것 축하한다…” 그런 답장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조직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고요.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가는 거 그게 인간 해방, 사회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사소한 것이 걸림돌이 안되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원장께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구속하려 하지 말아야 아름다운 사랑 만들기가 가능하다고요.

결혼은 해방이다!

결혼 뒤 첫해 기념으로 위원장께서 부인께 드린 선물이 <여성해방의 논리>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평등을 위한 실천에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네요. 두 분 다 바깥일을 하시니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셨고 부인께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늦게 집에 오게 되면 먼저 귀가하셔서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 일을 하곤 하셨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건강 챙기기에도 항상 따뜻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혹여 부인께서 앓기라도 하면 “나 사랑하는 거야?”라고 탓하면서도 극진히 간호하곤 하셨네요. 건강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아이 키우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믿음과 든든한 후원으로 아이를 키우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처음 해직되어 서방님도 옥에 계셨을 때, 부인께도 전교조 탈퇴 종용과 해직 압력이 들어왔겠지요. 이런 경우, 아내가 생계를 맡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임이 틀림없지요. 옥에 면회를 가니, 서방님께서 “원영만의 아내로 살지 말고 동지로, 한사람의 당당한 교사로 싸워라.” 그러시더래요. 그래 해직이 되고, 시어머님께 “아범처럼 학교에서 짤렸어요.”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범을 그 지경으로 만든 놈들인데 너라고 가만 놔뒀겠

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시면서 잘 먹고 열심히 해서 복직되어야 한다고 보약까지 해주시면서 기운내라 하시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게 사는 걸 몸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곧게 자랄 것이라 믿었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릇이 작은 것이다’ 여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곧고 힘차하게 자라주었다고 하시네요.

철원은 참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한번 오라고 하십니다. 민통선 안 철책선 구경도 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매운탕도 먹자고 하시면서…(오, 수정! 단풍 들어 경치 좋을 때 우리 한번 놀러 가자.)

끝으로 위원장님께 ‘양심수후원회’에 바라는 바를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후원회 소식지를 딱 한번 받아보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공기나 물처럼 평소에 그 존재를 당연시하면서 무심히 지내다가 문득 소중함이 느껴지는 존재가 있듯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숲과 나무의 관계처럼 전체와 개인은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경제 문제,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정보인권’도 앞으로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싸워나가야 하겠지요?

지난 15년 세월.

뚜벅뚜벅 굽힘없이 걸어온 노동자의 길.

참교육의 길.

미래 세대 아이들의 밝은 합성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제 안위를 위해 양심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원대학교에 다니고 지금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99학번 이덕용입니다. 엊그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 정성껏 보내 주신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참 궁금 하기도 하구 돈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소식지가 같이 들어 있지 않았던 점.

2001년 영등포 구치소에 용산 미8군 월담투쟁으로 수감되어 있을 때 보내주신 영치금 이후 또 받았습니다. 참 면목 없습니다.

제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도움을 드린 것이라고는 지난 과천 법무부 1층 로비에 항의하러 간 것이 전부인데 말입니다. 이석기 선배의 석방을 촉구하며 노보가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법무부 청사에 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8.15 광복절을 즈음하여 이석기 선배가 가석방이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수가 되어야 할 이석기 선배. 하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 봅니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님!

경원대 양심수가 3명인데 출입생 선배님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가협 의장님으로 계시는 경원대 출신의 위영석 선배 어머님과는 각별한 사이기도 하구요. 을 학교 선배의 어머님이 이렇게 잘 나가시니(?) 기분은 좋습니다.

경원대가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봅니다.

아! 요즈음 한총련이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지난 7일 미군 장갑차에 올라타 시위를 한 여파가 벌써 일주일째 계속됩니다. 보수 언론과 검찰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총련 죽이기에 눈이 멀었나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사

실을 모르나 봅니다. 암튼 절대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가혹한 수사와 말도 안되는 탈퇴서, 자술서 강요에도 절대 신념을 굽히거나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원대 역사가 그랬듯이, 선배들께서 그랬듯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옆에 있는 한 저는 제 안위를 위해 양심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곳 성동구치소에 온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TV도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도 있어서 제법 적응하기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제가 일반 사범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죄인취급 받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힘이 이렇게 약해졌나 싶어 서글프기도 하고 그립니다. 혼거방에 있어서 시간이 잘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암튼 저는 올해 안에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가서 더 큰 도움을 드려야 할텐데…

제가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로(11개월 남음)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제게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보답으로 이곳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의 양심수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8. 성동구치소에서 이덕용 올림
추신) 임기란 전 상임의장님의 건강도 더 잘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덕용님은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 성동구 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하는 '2003 회원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심주이 양심수후원회 회원

하루가 멀다하고 내리던 비가 어김없이 수련회 첫날도 내렸다. 늦게 대성리역에 도착해서 우산을 들고 '기찻길산장'으로 향하면서 걱정이 되었는데, 큰방에 앉아 계시는 장기수 선생님들과, 보라색 옷을 곱게 입으신 민가협 어머님들, 처음 뵙는 후원회원들과 마냥 신나 하는 아이들을 보며 당황했었다. 수련회를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 앞에서 놀라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아직은 어색한 풍경 속에서 송창학 간사님의 진행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장기수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후원회원들과 간단히 인사도 나누고, 수련회의 주제도 함께 힘껏 외쳐보았다. "6·15 기치 아래 으라차차!! 대동단결"을 가장 씩씩하고 우렁차게 외치시는 장기수선생님들의 모습에 금새 훈훈함이 느껴져 무척 좋았다.

비 내리는 천막아래서 식사를 마치고, 조별로 모여 장기자랑 준비를 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기만 했는데, 금새 옆 조에 뒤질세라 목청 높여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다. 다시 한자리에 모여 평양 8·15대회에 참가했다가 북송 장기수선생님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조별 발표가 이어졌다. 내가 속한 1조는 '민족공조'라는 이름아래 '반갑습니다, 동포여러분…수련



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로 조가를 부르고, 해방춤을 한바탕 신나게 추었다. 조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발표는 예상과 달리 다양하고 풍부했다. 빨치산시절에 불리어지던 노래도 나오고, 꼬마가 주한미군철폐기를 부른 것은 무척 신선

하게 다가왔다.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시던 선생님들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고, 백두산과 한라산을 소재로 했던 극도 정겨웠다. 그래도 일등의 이름에 걸맞게 으뜸 중에 으뜸은 정순택 선생님의 시 낭송이었다. 당당하고 폐기 가득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 퍼질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듯했다.

이렇게 뜨거워진 분위기를 연장해서 '시사퀴즈' 시간이 이어졌다. 간단하게 OX퀴즈부터 시작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점점 갈리기 시작했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서 모두들 엉덩이를 붙이기가 무섭게 이 자리 저 자리 옮겨다녔다. 패자의 신세를 한번 면한 나는 찍기 몇 번, 훔쳐보기 몇 번으로 간신히 끝까지 남아 폐회식에서 상품을 받았다.(헤헤)

뜨거웠던 한마당을 마무리하고 뒷풀이 자리를 준비했다. 넓은 공간에 자연스럽게 두런두런 모여 앉아 술과 밤으로 깊어지고, 새벽 2시가 넘도록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다. 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인 노래. 그런데 그곳

에 모인 모두는 가수 같았다. 장기수 선생님을 누가 노령이라고 하는가? 어머님들을 누가 중년이라고 하는가?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잡으실 때마다 나는 입을 쭉 벌려 야만 했다.

이 아쉬운 밤의 마당은 모두가 둘러서서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도 듣고, 손 맞잡고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함께 부른 뒤에 마칠 수 있었다.

누가 먼저 잠을 청한 건지… 7시 기상 소리를 듣고 부시시 눈을 떴는데 아직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않는 건지, 기상소리를 못들은 건지 여전히 고요했다. 씻으러 가는 길에 보니 운동장에선 장기수 선생님들과 후원회원 몇 분이 공을 차고 계셨고, 천막 아래선 아직도 이야기를 마치지 못한 두 분의 열띤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숭늉 한잔 들고 운동장으로 가는데, 선생님 한 분이 후원회 깃발이 꽂힌 바위 옆에 앉아 계셨다. 그 뒷모습이 바위섬에 기를 끊고 여정을 뒤틀어보는 듯한, 웬지 모르게 찬한 느낌이 들어서 한참을 바라봤다. 선생님의 지난 세월이 묻어나는 풍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전날의 비가 걷히고 미뤄두었던 명랑운동회가 시작되었다. 임의로 나눈 두 팀이 서로 뒤질세라 응원하고, 반칙도 하고, 뒤섞여 힘든 줄 모르던 시간이었다. 가장 아슬아슬하던 ‘풍선 풍기며 달리기’가 생각난다.

이어 강정구 교수님의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밑거름 쌓기’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애매하게 알던 것들을 들을 수 있어 참 좋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고 말았다. 귀한 말씀이었는데, 교수님께 많이 죄송했다.

폐회식 때는 이런저런 많은 시상을 한 것 같다. 상품이 여러 가지 사탕이었는데, 그 중에 호박엿이 어찌나 맛있게 보였는지,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시



는데, “선생님 저도 조금 주세요~” 해서는 맛나게 먹었더랬다. 점심을 맛있게 먹은 다음, 마석 모란공원 민족 민주열사묘역 참배가 있었지만, 나는 그 귀중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성당봉사활동때문에 먼저 떠나왔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어울려서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겐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

장기수 선생님들이 북의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민가협 어머님들과 민중들이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빨리 실현되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정순택 선생님의 시를 띠운다.

나는 외치노라

남북 땅 어느 곳이 내 나라 땅 아니어서
허리를 잘라놓고 총칼을 번쩍이냐
누굴 겨눈 총부리고 누굴 노린 칼날이냐
칠천만의 발걸음은 반쪽에 묶어놓고
통일의 외침소리 삼천리에 가득하며
이산가족 찾는 소리 애처롭기 짜 없는데
외세가 아니었던들 이런 비극 있을까

내 나라가 하도 좋아 도적들이 탐을 내니
옛부터 이제까지 화를 본 게 몇 차례냐
북방에 일어나서 침구 안한 나라 없고
바다 속의 왜적들은 천년 두고 괴롭힌다
세상이 개명하자 서양나라 다 덤비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릴 놓고 싸우더니
2차대전 마무리에도 우릴 놓고 흥정하고
6.25 전쟁은 우리 땅이 쌈터 되고
이제는 4대국이 한데 엉켜 등살 대니
밟히는 게 누구며 터지는 게 누구냐

이 중에도 미제국주의 악마는
우리의 남녘 땅을 제것인양 행세하고
이 곳을
동북아를 넘보는 군사 교두보로
정치 외교적 지배욕으로 구현장으로
경제적 착취의 보물창고로
악마적의 살인의 연습장으로 삼고 있다

이 판에 민족주체 세력은
끝없는 비극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6·15에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자주의 대로를 밝혔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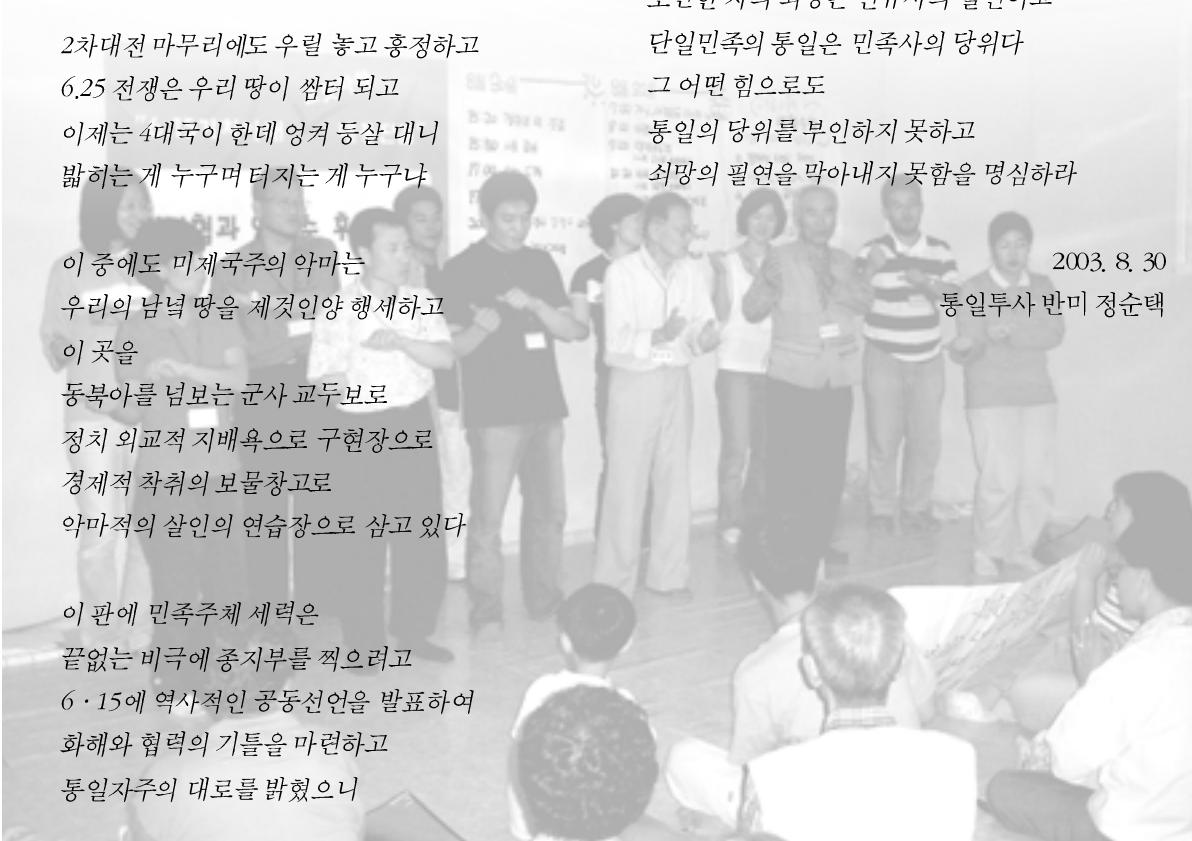
온 거래가 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양심이 환영하는데
통일이 주읍과 몰락으로 통하는
반민족 반민중적 수구반동 세력과
분단에 의해서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반통일 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결사적으로 방해한다.

여기에 힘으로만 세계를 삼키려는
오만 방자한 해매는 나라 미국(迷國)의
썩은 송장 부시(腐屍) 일당은
있는 채로로부터 통일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들어라!
인류의 적들아
민족의 역도들아
오만한 자의 쇠망은 인류사의 필연이고
단일민족의 통일은 민족사의 당위다
그 어떤 힘으로도
통일의 당위를 부인하지 못하고
쇠망의 필연을 막아내지 못함을 명심하라

2003. 8. 30

통일투사 반미 정순택



진보의련 사건을 말한다 –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전현준 진보의련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우리는 단지 그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직업·교육수준·성별·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반자본적·진보적 보건의료,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보건의료운동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1995. 2. 경부터 진보의련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중략) 그랬던 우리에 대해서 이적단체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내리다니... 우리가 적을 이롭게 했다면 그 적은 누구인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8월 30일 KBS 제1방송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진보의련 회원 라영찬)

지난 6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해온 협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진보의련 회원 중 1인에게는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인에게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보의련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모임으로,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사회정의와 보편적 인권을 도



외시한 채 낚아빠진 국가보안법이란 법적 안정성에 급급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대표적인 오판이라고 생각된다.

유죄가 선고된 권정기, 이상이씨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진료 봉사활동을 해왔고,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무료 진료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전라북도 순창군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했었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으로 인도주의 의료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직업·교육수준·성별·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지켜내기 위하여 진료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극심한 차별과 불완전한 보호내용으로 인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취약하여 사회적 약자의 질병 구제 기능을 제한받고 있는 등 제도적·구조적으로 부실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에서는, 인도적 진료봉사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 의료제도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자본주의의 가장 보수적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지나치게 성장과 효율, 경쟁, 개인주의를 강조함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구성원간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

음을 인식하고,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반자본적·진보적 보건의료,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보건의료운동적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1995년 2월경부터 진보의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의 행동은 정부전복이나 국가변란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상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보의련은 소수의 이념적 활동가로 구성된 폐쇄된 조직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조직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시되었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과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개인적이며 진보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른 단체나 개인 등에 발표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진보의련 회원은 30여명 정도였지만 실제 활동한 인원은 10여명 정도였고, 2000년부터 실제적으로 활동이 정지되었으며, 2001년 초반부터 단체 해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는 사무실을 완전히 정리하였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사무실까지 닫은 진보의련에 대한 탄압은 2001년부터 시



작되었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회원 8명이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저 하나를 체포하기 위해 10여명의 형사가 제 집도 아닌 선배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습 니다. 당시 체포대상자가 13명이었는데, 13명을 동

시에 체포하기 위해서 100여명의 형사를 동원했을 겁니다. (중략) 제 기억으로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건물은 4층이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실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찾아내야 합니다(2003년 8월 30일 KBS 제1방송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 진보의련 김철웅).

국회의 98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중 보안분야 인력은 5%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 전체 특진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상금제와 함께 각종 특진제가 공안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이른바 '실적 올리기'에 가까운 무리한 체포를 일삼게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자수 가운데 불구속 비율이 40-50%에 이른다는 통계는 무리한 체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보의련 조직사건인 것인데,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시 진보의련 전·현직 대표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재판부는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역사상 연행된 사람들 이 불구속으로 풀려난 최초의 사건이었던 바, 이런 사실만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나 무모한 조작사건이며

당시 검찰과 경찰의 사건수사가 명분이 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 할 것이다.

그 후, 2002년 1월 30일 검찰 공안부는 회원 2명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이적표현물제작배포죄로 공소장을 발부하였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국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 단체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한 것과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한 문건들을 만들고 전파한 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지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의료의 공공성은 보수 수구의 대명사격인 독일의 철학자상 비스마르크 아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다. 그러기에 ‘사건’ 초기인 2001년 10월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수구세력의 집권이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극우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된 정권교체기를 앞둔 전형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생각

한다. 그러므로 민중의 보편적 권리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검찰이 기소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법부가 이적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보의련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과 같은 직업을 가진 한 의사의 답변으로 글을 맺을까 한다.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상이 나와 틀리다고 죽여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사고가 민주주의의 적이다. (중략)

사상의 자유는 고사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정책을 토론하였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되었던 사안을 가지고 두 명의 의사에게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신봉자인 의사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한 2심 판결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내가 협오하는 사상일지라도, 그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믿는다.

(울산동강병원 응급의학과장 김승열) 



알립니다

10월 산행

10월, 가을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온 산을 물들여가는 단풍과 가을산의 기운을
만끽하며 함께 도봉산을 오릅시다.

일 시 :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도봉산 입구 (도봉산안내판 앞)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버스 19번 종점)
문 의 : 신현익(017-233-2800), 888-4470

한상권 교수님의 현대사 강좌



가까운 과거사를 앓으로서
오늘을 알고,
미래를 참되게 개척하고자 합니다.

일 시 : 10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⑧번출구)
문 의 : 송창학(016-235-3726), 888-4470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거듭촉구 한다

분 단의 아픔을 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통일된 조국민을 염원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 고향으로 돌아간지 오늘 3돌을 맞게 되었다. 이 같은 1차 송환은 당사자들의 확고한 귀향 의지와 끈질긴 송환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남북 온겨레의 한결 같은 뒷받침이 큰 뜻을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6·15 남북공동선언이란 역사적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바로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선언 3항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었다.

7천만겨레에게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은 어떠한 외세의 방해 책동에서도 흔들림없이 고수, 이행해야 할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였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정권이 옮겨졌다 해도 이 민족적 과업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공동선언에서 밝힌 비전향장기수 송환사업 또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귀향의지를 밝히고 있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는한 합의서정신에 따라,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반드시 북녘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송환 3돌을 맞고 있는 오늘 1차 송환자들과 다름 없이 통일조국 염원을 안고 수십년 옥고를 치루었던 비전향장기수 30명이 그리운 가족을 그리며 북녘 고향으로의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오랜 권위주위 체제 아래 공안당국의 감시 통제로 고립 폐쇄된 생활을 해 오면서 송환과 관련된 정보와 통보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부당한 사상전향제도 아래 잔혹한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인권침해 등 위헌성을 들어 사상 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약제를 폐기

시켰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잔혹한 고문등 강제 전향공작에서 죽임을 당했음을 확인하고 강제 전향의 위법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사상전향제도가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 된다는 것을 78차 회의에서 결의하면서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인권규약 제26조 평등권과 18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 19조 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하여 지난 2001년 2월 6일 위에서 말했던 장기구금 양심수들을 전향무효선언과 함께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안아 이들 모두를 비전향장기수로 규정하고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아무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었다.

2차 송환 희망자들 가운데는 전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포로 출신 13명도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과 재판, 전향강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했었다. 전쟁포로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와 부당한 재판, 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되었다. 또한 적대 행위가 끝난(정전협정) 60일 이내에 북송되어야 했던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아직도 공동선언 정신과 관계 없는 이른바 “다른 인도주의 문제”를 내세우면서 2차 송환에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 사이에 또 다른 “인도주의 문제”가 있다면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별도의 과제로 실천할 일이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태도는 당위성도 합리성도 없는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주장하지

만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이 늦어지고 있는데는 정부당국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 말고도 6·15 공동선언을 험집내며 남북사이의 화해협력 정책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핵선제공격을 말하는 등 미국의 전쟁책동과 무관치 않다. 이에 맞서 우리민족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남북사이엔 당국과 민간 부분에서 교류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교환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남북선수가 손을 맞잡고 공동 입장 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다시 한번 온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처럼 아무리 외세의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이 있다 해도 우리민족은 이어 결연이 맞서 6·15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것이고 그실천사업의 하나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차 송환희망자들이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지 이미 3년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많게는 89살된 장광명 노인을 비롯한 80살이상이 8명이고 70살이상이 17명이며 68살 이상이 4명 그 외 1명으로 대부분이 70살이상 노약자들이다. 그리고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만 해도 김태수, 김경선 두 노인이 꿈에도 잊지못할 고향을 찾지 못했고,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본보기로 그리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정순택, 정순덕 농인등 비전향 장기수 30명을 조건없이 송환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 9. 2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 위원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 수현황

2003년 9월 5일 현재, 총 104명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9월 5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9월 5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33명, 노동자 48명, 재야 및 기타 20명, 군인 1명, 농민 2명이다.

9월 5일 현재 양심수 10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의 14.4%인 15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801명이다.

신분별 분류					
총	학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104명	33명	48명	20명 (철거민9 · 노점상 7)	1명	2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화염병
15명 14.4%	31명 29.8%	37명 35.6%	28명 26.9%	36명 34.6%	1명 1%

기결, 미결 분류					
구분	학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기결 3명	2명	-	-	1명	-
미결 101명	31명	48명	20명	-	2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 공무집행방해
 업방 : 업무방해

8·15 민족대회 참가기

이기우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변호사

평양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햇살은 따스했고 순안공항으로 마중 나온 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열기는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적으로 만나던 장면을 방불케 했다.



흔들어 주었고 우리는 한반도기를 흔들며 같이 기뻐했다.

맑고 푸른 하늘아래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평양 시내를 통과하면서 만든 여의도 같은 큰 섬이 능라도이고 작은 섬이 양각도이다. 내 방은 호텔 31층에

얼마나 고대하던 평양방문인가!
얼마나 보고싶던 대동강인가!
장기수 선생님들이 평양으로 가신지 만 3년이 되었다. 나는 이종환 선생님, 조창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다. 1991년 가을 어느날 변호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대전교도소에 간 나는 이종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감옥살이하는 동안 민간인은 처음 봤다고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그분은 나중에 아파트 경비업무를 열심히 보셨다. 조창순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초구 우면동의 정육점에서 계속 일을 하셨었다. 나는 가끔 이종환, 조창순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 평양에 가서 이종환 선생님 묘소에 소주 한잔 올리고 조창순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 가서 묵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광복절 하루 전 날, 순안공항에 내린 남측 대표단 일행은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평양에서 제일 좋은 양각도 호텔로 향했다.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를 거쳐 양각도 호텔에 이르는 동안 북녘동포들은 정답게 우리 일행을 향해 손을

있어서 평양시내와 대동강과 능라도 경기장, 주체사상탑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통일의 꽃 임수경씨가 전대협 대표로 청년학생통일축전행사에 참가하여 북한동포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곳 중의 하나가 능라도의 능라 경기장(5.1경기장)이다. 그 능라도의 한쪽 잔디밭(능라도 공원)에서 2003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남·북·해외동포의 공동행사가 개최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나는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모성룡씨가 보내준 비디오를 들고 행사장 모습을 담고 있어서 “박용길 장로 선생 등 남측에서 오신 유명·무명 통일 투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라는 행사진행 사회자의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행사에 같이 참가한 임종인 변호사가 “누구는 유명 통일투사이고 누구는 무명 통일 투사냐? “며 농담성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한 후에 평양이나 금강산을 세 번 이상 방문한 사람은 유명 통일투사가 될 수 있겠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

러니, 권오현 선생님은 유명통일 투사가 된다. 그 후 나는 비디오를 찍을 때 권 선생님을 유명 통일 투사로 예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8·15 민족대회는 남·북·해외동포들의 대표 연설이 주가 되고 대부분의 통일투사들은 따가운 햇살 속에 앉아 있었다. 특히 내가 관여해온 일본의 한통련 소속 양동민 선생님이 범민련 일본지역 본부 대표로 연설하는 모습과 한상열 목사님의 사자후가 인상깊었다. (한통련은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자주적인 평화통일, 재일동포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온 단체인데, 1978년부터 반국가 단체로 낙인찍혔으며 나는 최근 10여 년간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9월 19일부터 4박 5일간 한통련 의장 과동의선생 등 한통련 회원들이 고국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8·15 민족대회 행사 진행 내내 나는 비디오를 찍으면서 통일이 되면 평양을 행정수도로 하고 공해 없는 도시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평양시내는 TV나 영상물에서 흔히 비춰지듯이 전투적인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었다.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들이 바둑판같이 펼쳐진 큰길에 균형있게 서있었는데 대략 30년 전에 세워진 것 같았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저녁 그 유명한 “평양 단고기집”에서 코스요리로 맛있는 식사를 한 후 밖에 나와 평양시내를 바라보았을 때의 느낌은 차갑했다.

6·25의 참화에서 쟁더미가 된 평양을 독일 건축가의 설계로 현대식으로 재건한 모습, 50여 년간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갖은 어려움을 다 겪은 현재의 북한 실정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평양의 어두운 밤거리와 아파트의 불빛들을 보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새삼 강하게 느꼈다.

또한, 하루속히 남북이 손을 잡고 통일을 이루어 다같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양방문 셋째날 일행은 평양교외의 동명왕릉을 찾았다.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릉을 말끔히 단장하여 미모가 수려한 여성동무가 북한식 역사관이 등ේ 담겨진 안내말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북한화가의 작품을 세점 샀다. 산수화, 호랑이화 등인데 “공훈화가”의 작품이다.

돌아오는 길에 2년 전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글귀를 만경대의 방명록에 남겨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받고 있는 강정구 교수 사건의 단초가 된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이 보이는 길가에 우리 일행이 탔던 버스는 약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냥 떠났으며, 평양 컴퓨터센타(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다.)에 들러 그들이 자랑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김중종 선생님이 언어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도 알게되었다.

옥류관 냉면은 처음엔 맛이 없었는데, 두그릇째 먹을 때는 안내원의 도움으로 양념을 잘 넣어 맛있었고 세그릇째 먹을 때가 제일 맛있었다.

오후에는 평양의 대성산 남문에 가서 남북합동예술공연을 재미있게 관람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저녁 식사를 고려호텔과 양각도 호텔에서 한번씩 남·북·해외동포들이 모여 같이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중국, 일본, 캐나다에서 온 분들과 이야기를 주로 했으며, 식사자리에서 북쪽의 시인 할아버지와 동계올림픽 스케이팅 부분 우승자 한필화 여사도 만났다.



나는 북한이 70년대 초반에 지하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8·15민족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평양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들든 바대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약 100미터 정도 내려가는데, 맞은편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젊은 청춘남녀 등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양에는 지하철이 두 노선이 있는데, 아주 시원하고 지하철과 주변 환경이 좋았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비디오 테이프 뱃데리가 나갔고 그 후 셋째날은 충전이 잘 안되어 비디오를 찍지 못했다.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마지막날 오전에 장기수 선생님들을 뵙게 되는데 그때까지 충전이 안되면 양심수후원회원들에게 보여줄 중요한 장면을 못 찍게 되기에 말이다.

다행히 같은 방 동료 심재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충전이 잘 되어 마지막 날의 중요행사에 대비할 수 있었다.(심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인데 나랑 이야기하는 도중 31층에서 바라보는 대동강이 너무 맑고 공기가 좋아서 평양에 이민 와서 살고 싶다고 한 사실이 있어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드디어 짧은 일정의 마지막 날!

훈장을 좌우에 그럴듯하게 단 선생님들이 양각도 호텔에 나타나셨다! 나는 비디오 기사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김선명, 홍경선, 김중종 선생님을 껴안고 포옹

하느라고 역사적인 첫 장면을 찍지 못했다.

잠시 후 그분들과 호텔의 한 아담한 방에 권오현 선생님과 민가협 채은아 총무 등 몇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나름대로 열심히 비디오에 담았다.

김선명 선생님에게는 “장군님…” 이야기 말고 후원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라고 권유하여 비디오에 담기도 했다.

선생님들 모두 한 10년은 젊어 보였다 그런데, 뺨과 실던 조창순선생님 안부를 물으니,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라고 하신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정신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북측 안내원이 시간이 됐으니 나가자고 한다. 불과 한시간밖에 안되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양심수후원회원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장기수 선생님들을 상봉하는 행사를 양심수후원회가 꼭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북한동포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고 돌아오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내 항공권은 “고려항공 일반자리표” 옆으며 뒤 7면의 사진에는 평양시내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

자연을 벗삼아…

김미성 양심수후원회 간사

벌써 3주년이다. 99년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다시 만날 그 날을 약속하며 그리운 고향 땅으로 떠나신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3주년 기념 및 2차 송환촉구 대회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가졌다. 내가 일하는 곳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은 낙성대 ‘만남의 집’ 방 한칸에 마련되어있다. 그곳에는 얼마 전 정순택 선생님께서 이사 오시어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모두 세분이 2차 송환을 희망하며 계신다. 여덟달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정 아닌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선생님들이 떠나신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3년 전 많은 선생님들이 북으로 떠나시는 비디오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어쩌다 보니 ‘이런 회원’ 꼭지를 내가 맡게 되었다. 이 달의 주인공은 하재광 님이다.

하재광 회원은 지난 4월 ‘이런 회원’ 꼭지로 필자인 나를 취재한 적이 있다. 현재는 그 반대가 되어 버렸다. 몇몇은 ‘짜고 치는 고스트’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다.

인사동에 도착해서도 한 시간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기다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술 한 잔은 하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재광형이 두리번거리며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누구를 취재하고 글을 써본 역사가 없는 나로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뭘 질문을 해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적어갔지만, 그 자리에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두서 없는 질문으로 취재 아닌 취재를 시작하고 말았다.

일터

재광형은 현재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지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시작해서 1988년에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 청년협의회’와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반 공해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시작되면서 1993년 전국 주요 8개 환경운동단체와 통합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어 지역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46개 지역 조직이 결성되어 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게 된 동기를 물었을 때 답은 간단했다. “집이랑 가까워서…”

재광형 다운 대답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광형 나이는 31살인데 97학번이란다. 군을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하던 중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곧장 사회단체에 몸을 담고 싶어 신문을 뒤져가며 면접을 보았다고 한다. 처음 이력서를 낸 곳은 ‘참여연대’ 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고 서울 중앙보다는 지역 쪽으로 가야 합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마침 집과 가까운 의정부 환경운동연합에서 간사를 모집했다. 그 곳에 원서를 내 합격을 한 것이다. 환경운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째란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이 아닌 사회단체를 택한 이유는 사회적 의식화 실천과 틀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함이다. 누군가 운동은 실천이라 한 적이 있다. 실천함으로써 자기발전이 있고 사회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현재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틀은 어디든 다 있는 듯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연을 벗삼아 현장활동을 통해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처음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하는 건 아니었다. 처음엔 환경운동에 대해 별 관심 없이 그저 사회단체 간사로서만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환경운동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환경을 공부하고 자연을 공부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생태적 감수성에 눈을 떴다고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연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으며, 자연환경에 많은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 한다.

생활

학생운동은 나이가 많아 스스로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어서 망설였는데 과대표 권유로 한신대 영문과 학생회 사회부 일원으로, 또 부장을 역임하면서 졸업을하게되었다고 한다. 학생운동 입문은 학교 분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학교의 대표적인 선배님들 중엔 양심수후원회 초대 회장님이셨던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준하 선생님이 대표적인 물이어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재광형은 노래를 좋아한다. 몇 번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마이크 독점형이다. 노래가 좋고 노래 부른 것이 좋아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사랑 청년회’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그곳에서 노래패에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워낙에 바빠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 청년회 활동이 뜰해 지면서 멀어졌다고 한다.

양심수후원회와 맷은 인연은 먼저 갈현동 후원회에

가입하면서이다. 현재 후원회 회원이며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인 오영순 회원이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 인연으로 영순언니가 재광형에게 출소장기수 선생님 후원단체인 갈현동 후원회를 소개 하였고 또, 양심수후원회 편집모임도 소개하면서 현재 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편집 모임의 유력한 대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지…

미래

7월 말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재광형과 아버지 둘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4월까지 사귀던 사람이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서 어느새 멀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현재는 애인이 없긴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였다. 첫 눈에 반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좋다고 한다. 혹시 형이 맘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과 잘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생태적 마인드와 결합하면서 전방위 문화계릴라로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즉, 문화적인 잡동사니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글쓰기, 사진, 노래,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욕심은 많지만 문화적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싶은 마음이라 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앞서 말했듯이 형은 글쓰기를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지난번 양심수후원회 김숙희 회원과 필자와 재광형 셋이서 ‘영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편을 본적이 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소감을 말하면서 나중에 본인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였다. ‘재광형에 있어 문화는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필자는 바란다. 앞으로 자연을 벗삼아 이 나라 이 땅의 문화를 이끌어갈 큰 일꾼이 되기를… 🚩

인생역전의 꿈(?)

양계숙 양심수후원회 회원

지난 12월 로또 복권이 발행된 후 6개월도 안 돼서 한반도는 로또 복권 열풍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화제는 온통 어떤 사람이 얼마에 당첨되었다는 것에 집중되었고, 당첨금액이 높아질수록 당첨금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져 1억은 더 이상 큰 금액이 아닌 듯 비쳐졌다. 지난 봄 당첨금액이 수백 억원대에 이르자 전국의 복권판매소 앞에는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우리 사무실도 예외는 아닌 듯 로또 복권이야기가 단연 으뜸이 되었고, 점심시간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더라, 금액은 얼마가 된다더라, 그 사람 과연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까 등등 로또 이야기는 칠 줄 모르고 계속 되었다. 그리고 당첨금액이 이월되어 최고수준이 되었을 시점에 사무실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복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단 일등에 당첨되었을 경우 직원들 모두에게 일억원씩 나누어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한 주 동안 일등당첨에 대한 희망으로 저마다의 찬란한 꿈을 꾸었다.

유 편집장은 일등에 당첨되었을 경우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일체의 집행과 운용은 그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였다. 그것 참 팬찮은 생각인데.

사장님은 학교를 설립한다고 한다.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교 말이다. 그런 학교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

임 부장님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 사람들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다는 부장님은 우리 회사가 엄마들에게만 「좋은 엄마」가 되

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좋은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한다. ‘좋은 엄마’ 파이팅

나는 어떤 꿈을 꿀까?

사실 난 좀 소심한 편이라 정말로 내가 일등에 당첨되면 어찌지 조금 걱정이 된다.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길 경우 정말로 잘 쓸 자신이 없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막상 돈을 보면 새로 운 욕심도 생길 테고 이러저러한 갈등도 생기겠지. 그래서 난 일등이 아니라 한 3억원 정도만 당첨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마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인 것 같다.

그 돈을 가지고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 작은 집을 짓고, 마당 가득 햇살을 받으며 살고 싶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선배는 우리 시대 소시민의 꿈이라고 한다. 이 시대의 소시민이 바라는 수준이 바로 3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내 집을 장만해서 전세 값 걱정 없이 사는 거라고 한다.

나의 소심한 꿈에 대해 신랑은 걱정 말라고 한다. 자기에게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말이다. 우리 신랑의 꿈은 우선 아주 큰 빌딩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새야 민주화 운동단체를 모두 입주시키는 것이다. 그 단체들이 임대료 때문에 좀더 쌈 곳으로 옮겨 다니는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단다. 단 무료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료 수익으로 빌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당연히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정말로 기특한 생각이지 않은가.

아 나도 좀더 원대한 꿈을 꿀걸 그랬나. 그치만 난 3

억원에 만족한다. 아니면 우리직원 누군가가 일등에 당첨되어 나에게도 일억원이 떨어지거나.

다음주 월요일 우리 직원 중에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누구도 일등에 당첨되지는 않았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당첨되었고, 우리들은 점심시간에 그 뒷 얘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비록 우리 중에 누구도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었고 그 한 주일을 통해 우리 직원들과 나의 식구가 가진 소중한 꿈을 알게 되었다.

난 사실 복권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도 별로 없고.

확률 면에서도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인해 행복 할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일등에 당첨된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위해 깜짝 놀랄만한 일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꼭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로 써달라며 김부섭선생님께서 15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심수후원회 어려운 재정에 보태 써달라며 박호철, 김영일, 이장규 선생님께서 각각 100만원 씩 큰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회원역사기행

1993년부터 있었던 양심수후원회 회원역사기행이 올해에도 있을 것입니다. 기행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역사기행은 한상권교수님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고 모두가 만족할 만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시간 비워두십시오.
기행지는 이후에 공고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1989년 창립한 뒤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창립회원으로부터 신입회원까지 가정주부, 회사원, 노동자, 학생, 교직원, 교수, 보건의료인, 법조인 등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회원들이 그동안 큰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목표했던 일등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창립회원이 한번도 거르지 않고 회비를 내시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수후원회의 재정은 언제나 어렵기만 합니다. 특별회원들의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가 매달 150만원씩 들이가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후원회원이지만 바쁘시거나 어려운 사정으로 회비를 내시지 못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으면 큰 부담없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 있어 회비를 내시지 못했던 회원들께서는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을 위해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잠정 날짜 : 2003.10.25~26 (1박 2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올림

민족의 하나됨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헌신적으로 실천하시고 가신 신부님

그 고귀한 정신과 생애는 민족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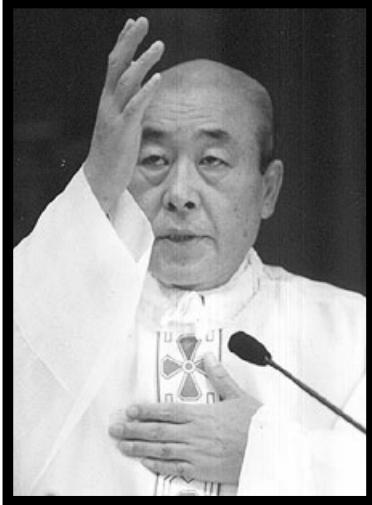
신부님! 김승훈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 따라 평화스럽게 하느님의 천국으로 떠나셨지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위해 특히 고난받는 양심수를 위해 한결같이 지도, 격려하시며 큰 성원을 해주셨던 신부님을 떠나보내 드려야 하는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슬프기만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적고 조용하셨지만 세상을 바꾸어 놓게 하셨던 신부님이셨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위한 일에 감옥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자를 위해, 그들의 해방과 자유와 생존을 위해 헌신하셨던 신부님이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굳은 일, 어려운 일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신부님. 그러나 아직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신부님을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슬픈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신부님의 헌신과 염원은 남은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신부님께서 실천하셨던 하느님의 정의는 속인들이 생각하는 카톨릭 사제의 역할과는 남다른 테가 있었습니다. 6월항쟁을 6월혁명이라 하시며 이제 민중들이 선거혁명까지 해야 군부독재를 끝장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길 구세주께서 내세우는 나라는 억눌린 자, 찢긴 마음을 가진 자, 포로가 된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포



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고 학생들의 데모도, 노동자들의 분신도 없어질 것이라며 지금 온통 세상을 무섭게 하는 깡패들의 범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 나라의 불행한 현대사는 오로지 민족분단에서 시작되었기에 열심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신부님이 강조하신 하느님의 정의는 강론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주장과 관념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

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른바 YWCA위장 결혼사건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관련으로, 반미성명서 관련으로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혹한 군부독재시대 무소불위의 공안당국에 맞서 고박종철열사의 고문은폐 축소조작사건을 폭로 규탄 하심으로 30여 년 군부독재를 끝장나게 한 6월 민중항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또한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고난자들의 베품목이자 후원자이셨습니다.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사회진보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 편에 확고히 서서 지지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조건이 있는 장기구금 양심수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유신독재시대, 반파쇼민주화와 반미제 민족자주를 외쳤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을 비롯하여 재일동포 사건 등 아무나 쉽게 대들지 못하고 있을 때 신부님께서는 고 문익환 목사님과 함께 분단의 벽, 냉전

의 벽을 깨뜨리며 석방과 후원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1985년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가 결성되자, 그 고문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장 믿음직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1989년 장기구금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결성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지도위원으로 계시면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운동을 하여 마침내 260여명 모두를 구출하고 비전 향장기수 63명이 북녘고향으로 송환되게 하는 결정적 후원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거리낌없이 맡아하신 또 하나의 예로 이미 1990년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탄압을 받아오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고문을 맡으셨고 범민련 후원회 회장을 맡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스스로 민주인사, 인권운동가, 통일운동가라 하지 않으셨지만, 카톨릭사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빈민운동을 하다 구속된 양심수가 120여명에 이르고 150여명의 정치수배 학생들이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신부님의 지도와 격려로 양심수 석방운동을 해오던 저 개인으로서도 신부님께서 가신 빙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길 따라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세상,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가신 신부님, 그 고귀한 정신과 생애는 우리민족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2003년 9월 4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이 글은 지난 9월 4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고 김승훈 신부님의 민주 사회장에서 낭독되었던 추도사 내용입니다.

故 김승훈 신부님 약력

1939년	7월	6일	평안남도 진남포 출생
1962년	12월	21일	사제서품
	12월	22일	신당동 천주교회 보좌
1964년	2월		성신고등학교 교사
1965년	12월	28일	혜화동 천주교회 보좌
1966년	9월	5일	아현동 천주교회 보좌
	9월	5일	동두천 천주교회 주임
1968년	10월	15일	가르멜수녀원 지도신부
1972년	1월	28일	신림동 천주교회 주임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참여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재판 받음
1977년	5월	6일	동대문 천주교회 주임
1978년	3월		김지하 구출위원회 결성 참여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구속
1980년	5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으로 연행, 54일간 구금
1982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회장 역임, 반미성명서 관련 구속
1982년	9월	9일	홍제동 천주교회 주임
1985년			민주제도 쟁취국민선언 연명 및 발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은폐, 축소조작사건 폭로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역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성명서 발표 및 단식기도
1993년	11월	5일	여의도동 천주교회 주임
1994년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
1996년	10월	11일	시흥동 천주교회 주임
1998년			장충성당 10주년 기념 및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위해 사제8명과 함께 북한 방문
1999년	11월		강론집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출간 들빛회(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회장
2001년	10월	5일	안식년
2003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천주교인권위원회 고문

- 자료제공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01** 용산 미8군 정문앞에서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 반미·반전 평화 수호 통일연대, 통일선봉대 발대식'이 열리다. 통일연대 소속회원과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등 통선대원 7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여는 말. 오종렬 의장의 격려말, 통일선봉대 이규재 총대장과 민주노총 박오열 통선대장, 박성분 청년선봉대장, 김상섭 범청동군 대장, 황선 통선대 총대장의 결의 발언이 있었음. 통선대는 8·15 까지 전국을 돌며 100만 서명 10만 조직사업을 하게 된다.
- ▣ 이북과 미국은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과 북,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 동시 발표하다.
- 02**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한총련 수배자 가족모임이 4차 총회를 열고 한총련의 합법화 정치수배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한총련 후원회로 전환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
- ▣ 남과 북은 평양에서 8·15 민족대회 실무접촉을 갖고 장소, 명칭 등 결정하고 돌아오다. 개막식은 능라도에서 폐막식은 대성산성 남문 앞에서 대표단은 남측 300, 북측 400, 해외 150명으로 하고 본 대회, 상봉모임, 체육오락경기, 예술공연 연회 등을 갖기로 하다.
- ▣ 음성에 살고 계셨던 정순태 선생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시어 사시기로 만남의 집 선생님들과 양심수후원회 의견모음. 정선생님께서 만남의 집에 오시어 의논마치고 음성으로 돌아가심.
- ▣ 경기도 포천 미8군 영평사격장에서(로드리케스) 미 첨단기갑여단 스트라이커 부대 범죄적인 실사격 훈련 감행.
- ▣ 정몽현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계동 현대사옥에서 투신자살하다. 정회장은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 정회장은 유서에서 대북경협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자신의 유분은 금강산에 뿌려 달라 했음.
- 05**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이름으로 광복절 양심수사면 을 축구하는 성명서 지역양심수후원회와 문안합의, 기자회견장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양심수후원회로 송고하다.
- ▣ 한신대학교 학술원과 민주사회정책연구원(한신대, 성공회대, 상지대 등 컨소시엄 연구원) 소속조사원 낙성대 만남의 집에 와 양심수후원회에 대한 각종 단체조사를 하다.(권오현 대표, 김미성 간사)
- 06**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광주, 대구, 대전, 서울)주최로 '8·15 광복절에 양심수전원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윤보현 사회로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 취지 말, 대전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은수 회장과 김방 부회장,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한기명 공동의장 외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음. 전국모임은 공동성명에서 8·15 광복절에 이석기, 김형주의장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 유영업, 차수련 등 정치수배 해제 대북송금관련, 특검법으로 구속된 관련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다.

▣ 통일연대 차원에서 고정몽현 현대아산 이사장의 명복을 비는 빈소문상을 다녀오다. 이날 문상에는 나창순 범남본 의장과 성원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도강호 민자통 대표, 노중선 4월혁명회 공동대표, 윤한탁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 등이 함께 했음.

▣ 인사동에서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2003 회원여름수련회준비모임을 갖다. 김호현, 모성룡 운영위원과 민가협 채은아 총무, 송창학, 김미성 간사 그 외 변의숙, 이승미, 김민정, 이진, 노혁, 김숙희 회원 등이 함께 함.

07 미대사관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형사재판 관활권 포기거부 1주년을 맞아 미군 당국에 항의하고 SOFA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현 상임고문의 여는말, 문대골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미대사관에 촉구서한 전달.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다. 결성식에서는 곽동의(한통련의장) 이수자(고 윤이상 선생 부인) 송두율교수 등 100여명에 이르는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을 추석을 전후하여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현 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운영위원들이 추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음.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82회 목요집회 열다. 진보의련 대책위 상황보고, 양심수가족과 수배자가족들 8·15 광복절 특시를 호소하는 글 낭독, 권오현 회장 6자회담 등 시국상황과 미국의 전쟁책동 규탄발언.

▣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지난 4일 척추수술을 받고 입원치료하고 있어 목요집회를 마치고 민가협 어머니들과 서초동 이익모 정신신경과 병원으로 문병 다녀오다.

▣ 한총련 소속 대학생 50여명이 서울 을지로 5가 미국

- 동건설 공병단 앞에서 미국의 전쟁책동 반대 기습시 위를 하다가 6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다. 2명은 중부서에 4명은 도봉서로 연행되다. 먼저 중부경찰서에 가서 강제연행을 항의하고 한양대 중앙대생 등 두명을 면회하다. (김영우, 권낙기, 권오현 등) 또한 도봉서에 항의 가던 통일선봉대 대절버스를 경찰이 가로막고 3시간동안이나 불법 감금 상태에서 학생들 80여명과 강력하게 항의, 차에서 내려 규탄집회를 열고 이규재, 김영우, 박정숙, 권오현 대표와 학생대표 4명이 연행 학생 면회하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권오현 대표 면회 보고를 한 다음 통선대와 학생 등 150여명 해산.
- 경기도 포천군 영평 미8군 사격장(로드리캐스사격장)에 한총련소속 대학생 12명이 기습진입 '한반도 전쟁책동 미군부대 즉각 철수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다. 학생들은 미군장갑차에 올리타 구호를 외치며 전쟁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하다. 학생들 미군들에 의해 부대 밖으로 밀려났고 경찰에 강제연행 포천경찰서와 의정부 경찰서에 6명씩 분리 구금되다. 이들을 취재하던 김용남, 이명훈기자와 일본인 기자도 연행되다. 김영우, 이규재 선생과 장경욱 변호사가 포천과 의정부 경찰서 방문 학생들 면회하다.
- 08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여중생 범대위 촛불집회 과정에서 강제 연행 구속기소된 전현욱씨에 대해서 1년 6월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바로 재판장에서 석방하다. 재판이 끝나고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범원 앞에서 환영집회를 열다. 전현욱씨 인사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환영사가 있었음.
- 여중생 범대위 권오현 상임고문과 채희병 사무국장 등 의정부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과장 등을 만나 여중생 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 민주노동당 이승현 자통국장 등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
-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포천 영평사격장 스트라이커 부대 전쟁훈련 반대 등 시위를 벌이다 강제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통일연대, 여중생 범대위 한총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경과보고 참석자 소개에 이어 권오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박지현 수도권 통선대장의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기자회견장에는 수도권 통선대원 70여명이 함께 했으며 15명의 학생대표와 권오현 외 재야단체 대표 5명이 학생들 면회를 하다.
- 고정몽헌 현대아산 이사장 영결식이 서울 아산병원 잔디광장에서 유가족과 조문객 등 2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다.
- 0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스트라이커 기동여단의 영평사격장 시위 학생 12명과 민중의 소리 기자 등 13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한뒤 구속영장 확정하다. 한양대 02 하태우, 고려대 02 김남우, 연세대 03 오원주, 중앙대 03 김주식, 용인대 02 임선진, 03 우상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01 추승미, 03 지혜민, 경희대 03 오종식, 03 정동영, 한경대 00 유기상, 경기대 01 김식 등 12명, 또한 7일 을지로 미군공병대 기습시위 학생 6명중 서울대 98 김종현, 중앙대 02 김정휘 학생에게 영장신청 하다.
-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통일연대 수도권 통일선봉대 80여명이 스트라이커 부대 전쟁연습을 하다 연행된 학생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항의 시위 하다가 전원 연행되다. 이규재 통선대 총대장이 의정부 경찰서에 연행 구금되는 등 고양, 부천, 남양주, 일산, 안양, 연천 등 경찰서에 나주어 연행 감금하다.
- 음성에 살고 계시던 정순택선생님이 오늘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이사 오심. 이삿짐은 주로 책이 많았는데 김영식선생님께서 애써주셨고, 오후에 변의숙, 김미성, 김숙희, 이봉주, 이일규, 김범용, 권오현 등 집 정리하고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했음.
-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여중생 범대위, 한총련이 공동으로 미 스트라이커 부대 전쟁훈련 반대 시위에 대한 주한 미 대사 및 미 8군사령관 공개 면담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현 대표의 취지 말, 김종일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스트라이커 훈련 규탄 발언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미대사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김지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의 주한 미대사 공개 면담 요청서 낭독, 수도권 통선대장 박지현 서남총련의장(중앙대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 북미 불가침 조약체결 전쟁반대 평화실현 결의대회를 열다.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사회로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노수희 통선대 서군대장의 보고 황선 범청학련 통선대 총대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은 다음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 정리 집회를 하다. 정리집회에서는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이 스트라이커 부대에서의 학생들 시위의 정당성 등 주장하다.
- 11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 범대위 소속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한총련

- 학생들의 미군사격장 시위와 관련 마녀식 영장남발 등 공안탄압에 대응하는 간담회를 열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영평사격장 시위와 관련 한총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우대식 대변인 사회로 경과보고에 이어 오종렬 전국연합의장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사격장시위 정당성 발언, 정재욱 한총련의장의 입장발표가 있었음. 정재욱 의장은 '스트라이커 부대에서의 시위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평화시위였다. 한총련의 이름으로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의사 표현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총련이 되겠다고 밝힘.
-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신 정순택 선생님을 모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무연고 거택 보호자 신분 등 알림.
 - ▣ 용산 미8군 정문 앞에서 제16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는 '6·15 공동선언 고수이행 반미·반전 평화실현 8·15 민족통일대회 성사를 위한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다.
 - 12**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용산 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등 공동주최로 제47회 반미연합 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문정현 신부의 여는말, 이영순 청년통선대장 등이 미국의 전력증강계획 대북 전쟁 정책 스트라이커 훈련 등을 규탄하고 상징 의식으로 장갑차 모형을 짓부수는 퍼포먼스도 있었음.
 -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강만길, 박용길, 김진균 교수 등 각계원로 30여명이 '전쟁을 막고 우리민족 평화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하다.
 - ▣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은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미국의 대북전쟁 정책 철회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부시에 보내는 항의엽서 발송기자회견을 열고 2만여통의 항의엽서를 우체국에 접수시킴.
 - 13** 명동 향린교회에서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71개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의 한총련 탄압에 대한 대응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은 한총목 한총련 대책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상임대표의 취지말, 우대식 11기 한총련 대변인의 경과보고,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사회단체들은 ① 미국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에 대한 전쟁위협을 중지하라. ②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평화 시위를 빌미로 한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③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미국의 내정 간섭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④ 미국의 전쟁

위협에 동조하고 전쟁연습을 친양하는 노무현정부의 사대굴욕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⑤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한총련에 대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⑥ 구속학생 전원석방 수사확대 방침 철회하라.'고 밝힘.

- ▣ 수유리 통일연수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이른바 방북 교육이 진행되다. 양심수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우 부회장이, 권오현 회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로 대회에 가기로 하다.
- ▣ 신촌에서 2003 회원여름수련회 준비를 위한 책임실무진의 준비모임이 있었음. 김호현, 모성룡, 노혁 회원들 함께 하다.
- 14**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참가할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등 남측대표 300명과 기자단 등 339명이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직항로를 거쳐 평양순안비행장에 도착하다. 북측대표단과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다시 공항을 떠나 3박 4일에 머물 곳 양각 호텔에 도착하다. 호텔에서 뷔페식 점심을 먹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 소년학생들의 학습 현장과 공연을 관람하고 다시 통일거리에 있는 평양 단고기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 평양방문 공식일정 마치다. (8·15 민족대회 참가기 참조)
-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91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총련에 대한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성명은 ① 미국은 전쟁위협 증가시키는 군사훈련 대북강경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② 한총련 학생들 구속취소 불구속 재판 ③ 한총련에 대한 왜곡보도의 수구족벌 언론과 정치인은 각성할 것 ④ 정부당국은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와 관련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를 연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적규정을 철회 할 것 등 주장.
- ▣ 민기협 483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서경순, 출소장기수 김영식 선생님 발언,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를 한총련 탄압의 빌미로 삼지 말라! -한총련 수배자 이산라의 어머니(김나희)
- ▣ 후원회 소식지 발송 작업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김숙희, 김민정, 이봉주, 이진, 이일규, 김미성, 김영식, 문상봉선생님 함께.
- 15** 평양에서도 유원지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가 남측대표 300명 북측대표 400명 해외동포 150명 등 850명과 평양시민 200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음. 북측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과 남측 김종수 종단사무총장 공동사회로 애국의례,

개막식에 이어 북측여성 취주악단의 연주 속에 단일기 계양이 있었고 이어 명예손님으로 참석한 홍성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의 축하연설을 했음. 이어 남측에서는 한양원(종단), 윤재철(민화협), 한상렬(통일연대) 대표가 연설을 했고 북측에서는 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박순희(여성) 대표가, 해외에서는 양은식 범민련 재미본부의장이 연설을 했음.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7천만의 결의를 이경숙(여성단체 연합대표), 강규상(조선직업총동맹 황해남도 위원회 위원장), 문쾌한(재중조선인청년연합의장) 대표가 공동으로 낭독하고, 참가자들이 박수와 환호로 채택하는 것으로 개막식 마침. 이어 점심식사를 하면서 남과 북 해외 대표의 각 부문별 상봉모임이 있었음. 이어 능라도 공원에서 체육오락 경기를 연대팀과 단합팀으로 나누어 진행. 마친 다음엔 부흥역에서 영광역까지 평양 지하철 견학을 했고 곧바로 양각호텔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고려호텔에서 환영만찬이 있었음. 김영대 민화협 회장(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과 오종렬 전국연합의장의 만찬사 등이 있었고, 남과 북 해외대표, 대화를 나누며 만찬모임. 이것으로 이틀째 행사 모두 마침.

❶ 서울 종각 4거리에서 시민·학생·노동자 등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범대위 공동으로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이 열리다. 한총목 대회 집행위원장 사회로 열린 '반전 평화 한마당'에서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등 대회사에 이어 여중생 범대위 김배곤 대변인과 인천통일연대 정보선 사무처장 사회로 '우리가 전쟁을 막자' 두 번째 마당 문화공연을 진행. 행사 마치고 경희대로 이동하다. 이보다 앞서 반전평화 2003 노동자대회, 청년학생대회, 8·15 통일대행진 빙민대회, 청소년 통일한마당 등이 있었음. 행사가 끝나고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광주, 대전, 대구, 서울)단체 회원 한자리 모여 인사 나눔. 김민정, 김숙희, 이일규, 한수정, 유선화, 송창학, 노혁, 도은주, 이창희, 김현희, 하재광, 함정희, 변의숙, 이승미, 김미성, 이진, 갈현동후원회 함께.

❷ 저녁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2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통일선봉대 및 8·15 통일대행진 10만 조직사업단 해단식'을 갖다. 통일연대 주최 참가단체 깃발 입장, 노수희 통선대 동군대장과 각 부문(노동자, 청년, 학생)의 투쟁보고와 결의발언으로 진행하다. 같은자리에서 밤 10시부터는 '반전

평화 8·15 민족대회지지 통일연대 결의대회'를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박재송 경희대 부총학생 등 100여명 자봉단 인사, 통일연대 명예의장 이종린 대표의 대회사,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부회장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7천만의 결의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침. 범민련후원 주점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원자원봉사로 도와줌. 범민련후원 주점에서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광주, 대구, 서울) 한자리에서 뒤풀이 함.

❸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간첩 가족누명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수지 김씨 유족이 국가와 윤택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내다.

❹ 평양 8·15 민족대회에 참가한 남·북·해외 대표들은 오전 3대현장 기념탑을 지나 동명왕릉 답사하다. 이어 청춘거리에서 가까운 곳이 있는 조선 컴퓨터센터 방문 전문분야별 연구실을 견학하고 옥류관에 도착 유명한 평양냉면으로 점심을 먹다. 오후 4시부터 대성산성 남문 앞에서 남북예술공연에 이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폐막식을 갖다. 폐막연설은 남측에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해외에서는 재일대표로 온 이재활씨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차례로 발언을 했고 만세 3창과 여성 취주악단 연주 속에 단일기 하강으로 모두 마침. 저녁에는 양각호텔에서 환송만찬을 하다. 만찬에서는 남측에서 명진 스님, 해외에서는 범민련 양은식 미주의장, 북측에서 직업총동맹 염순길 위원장 그외 이장희 교수 등이 발언하다. 만찬을 끝으로 모든 공식행사 마치다.

❺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주최로 '조국통일 범민족학생연합 결성 11주년 기념 대회'를 열다. 정재우 한총련 11기 의장(남측본부 상임부의장)대회사, 북측본부와 해외본부 연대사를 이영훈 11기 조통위원장과 윤영일 남총련의장이 대신 읽고, 나창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의 축사, 손준혁, 황혜로 등 특별손님 소개, 마지막으로 윤기진 남측본부 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❻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반대 한총련 탄압중단 인간띠잇기 대회'를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 범대위 공동으로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다. 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 사회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대회사, 배은심 여사의 인간띠잇기 대회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이 인간띠잇기 대회에 함께 했던 한총희 국민대 2002 총학생회장 성복

- 경찰서 보안과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다.
- 한총련은 경희대 여학생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명의수배학생들이 공동서명한 수배학우 수배해제 선언운동을 발표. 요구사항으로 152명의 수배자 전원 수배해제와 11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임의규정 철회를 요구하다.
- 후원회 소식 141호 국내 1,218통, 국제 17통 발송하다. 이일규, 김미성.
- 17**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참가했던 남측 대표들 오전 종교행사 등 마치고 순안비행장으로 떠나 출국수속 등 마치고 공항광장에 이미 나와 있는 평양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다. 공항로비에서는 통일연대에서 마중나와 간략한 환영행사를 마친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운영위원과 조명희 회원이 마중하다.
- 평양 양각호텔을 떠나오던 아침 2000.9.2 송환되었던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 6명이 호텔로 송환추진위 관련 단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오셨음. 이에 송환 추진위 권오현 대표와 이기욱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채은아 민기협 총무, 노진민 천주교 통일후원회 대표, 통일광장 원윤연, 인천나사렛 한방병원 이강일 원장이 호텔 별실에서 뵙게된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휴양지로 가족들과 휴양을 가셨기에 호텔에 오신 분은 홍경선, 김선명, 우용각, 김중종, 김영만, 김창원 선생님만 오셨음. 짧은 시간이었기에 간단한 소식을 주고받았으며 건강하심을 확인했음. 남쪽에 있는 관련 후원자들의 안부말씀과 선생님들 남쪽관련단체 계신 후원자들의 안부말씀이 있었음.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아쉬운 상봉시간을 마쳤음.
- 18** 용산 미8군 5번 게이트 앞에서 통일연대, 여중생 범대위, 평통사, 한총련 등 공동 주최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을지 포커스 렌지’ 훈련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다. 김종일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취지,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성북경찰서 앞에서 국민대생 등이 지난 16일 국민대학 한종희 2002년 총학생회장 강제연행과 관련 규탄 집회를 열다. 마치고 학생대표 12명과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회장 한종희 학생 면회하다.
- 외국어대학 용인캠퍼스 강길수 학생이 이 학교 정문 앞에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강제 연행되다.
- 19** 공안당국은 2002년 한신대 이태윤 총학생회장과 이용우 부총학생회장을 연행조사 중이고 덕성여대 성자윤 졸업생을 연행. 성자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면복권까지 받은 학생이었음.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지난 15일 보수·우익 단체들 인공기 소각 등 만행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재발 방지를 발표한 것을 사죄의 의미로 간주 유보했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선수단을 보내기로 공식 통보하다.
- 남북은 판문점 접촉을 통해 4개 경협 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하고 6차 철도도로 실무접촉(금강산 21-23일) 금강산 면회소 건설 추진단 실무접촉(금강산 21-23) 남북 경제 협력추진위(서울 26-29일) 등 남북관계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하다.
- 20** 5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이었으며 정치수배자 모임 대표인 유영업 97 목포대 총학생회장과 송승훈 목포과학대학생회장(모두 7년 수배)은 목포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25 검찰발표에 따른 자진출두를 선언하고 경찰에 출두하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목포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정치수배자 모임은 자진 출두 전면 유보 선언하다.
-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할 북측선수단 218명과 응원단 302명이 두 번 나누어 김해공항에 도착 환영을 받으며 선수촌과 응원단 숙소에 들어가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8년 5월 구미유학생사건 강용주씨를 대리하여 조용환 변호사가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 개인정보를 제소한 것을 심리한 결과 지난 7월 15일 78차 회의에서 유엔 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결정. 남쪽 정부와 조용환 변호사에 통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다. 이 결정문은 사상전향제도가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 위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인권규약 제26조(평등권) 18조 1항(사상, 양심의 자유) 19조 1항(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
- 21** 안국동 천주교 통일후원회 사무실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실행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회의를 열다. 회의에서는 ①회계보고 및 청산방법 ② 9.2 송환 3돌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안 등 토의하다.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와 권낙기 대표, 노진민 집행위원장은 통일부를 방문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에 송환 할 것을 촉구하다. 대표들은 지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평양에 갔었던 권오현 대표 등

-
- 이 호텔에 찾아온 비 전향 장기수 6명을 만났음을 알려 주다.
- 민가협 484회 목요집회 열림. 여는 말- 조순덕 상임의장,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지어진 상황보고- 진보의련 대표(권정기), 진료비 제도법 보장, 의료공공성 강화 해야한다.-건강세상을 위한 네트워크(강성준),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이적 규정 판결 규탄발언-진보의련 사건 공동대책위 사무처장 (전현준), 꽂다지 노래 공연
- 대구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막된다. 169개국에서 온 대학생 선수들이 가나다 순으로 입장. 맨 나중에 '코리아팀'은 남북이 공동으로 단일기를 들고 입장 7만 관중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 신촌에서 8월 시사모임에서 수련회 시사퀴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행함. 송창학, 이창희, 이용준, 이진 참석.
- 서초동 겸찰청 앞에서 통일연대, 여중생 범대위, 한총련 등 공동으로 '미 스트라이커 투쟁관련자 석방과 한총련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규탄 대회'가 열리다.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권오현 양심수후원 회장과 서경순 전 민가협 상임의장의 규탄발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 마지막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겸찰청 앞까지 행진 나창순, 조순덕, 권오현과 학생대표 등 대겸찰청에 항의서한 전달하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 15차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림.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2003 회원 여름수련회 준비점검 등.
-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 공동으로 '미 F-15K 전투기 도입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전투기 기종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도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
-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통일연대, 한총련, 평통사 등 사회단체 공동으로 '을지 포커스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및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규탄 반미 연대 집회를 열다.
- 대구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접행되고 있는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정문 앞에서 이른바 민주참여 네티즌 연대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20여명이 독일인 강페 느르베르트 폴로첸 등과 함께 이북과 그 지도부를 모독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와 화합정신에 배치되는 만행을 저지르다. 이에 북측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다.
- 남산 옛 안기부 터 앞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민가협 등 18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으로 '남산 옛 안기부 터 역사보존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회로 김용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인사말로 채은아 민가협 총무의 경과보고, 사례발표로 김정숙, 서경순 전 민가협 상임의장 기자회견문 낭독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업계획안, 조승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씨 등으로 진행. 마치고 지하고 고문실 등 답사함.
- 명동 향린교회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청와대 보도순례단과 이석기 석방대책위 주최로 '청와대 도보순례, 농성 실천단 및 이석기 석방 대책위 해단식을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림. 김기창씨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의장과 이석기 석방대책위 권오현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석기씨의 인사말, 도보순례 단장의 경과보고, 하영옥씨의 석방투쟁 평가와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한 뒤 권오현 대표의 해단 선언으로 1부 순서 마침. 2부 순서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참가단위별로 투쟁경험담 평가 등을 했고 최다 참가자상, 매니어상, 기쁨활력상, 장기투숙자상, 초기 발동상, 용감무쌍상 등 시상식이 있었음.
- 전국만 복측 U대회 선수단 총단장은 미디어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반동 보수단체성원과 느르베르트 폴로첸이 우리공화국을 중상하고 존엄높은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광기를 부렸다.'며 '동족이 동족을 타도하자는 구호까지 터져나오는 대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경기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주동자 즉시처벌, 사죄,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다. 한편 민주노동당, 한총련 등 정당 사회단체들은 보수·우익단체의 난동에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
- 안국동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회의 열다. 재정문제 해결과 9·2 송환 3들 및 2차 송환 촉구 대회 관련준비상황 점검.
- 한양대 콘서트홀에서 범남본 주최 범민련 서울시연합 주관으로 '아름다운 통일운동가 고 문재룡 선생님 1주기 추모제' 열림. 박재익 서총련의장의 약력소개, 노래페 '우리나라'의 추모의 노래, 김규철 서울시연합의장의 추도사, 임방규, 오종렬 의장의 회고담, '희망새'의 추모공연, 유선희 서청협의장의 추모발언,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의 추모시낭독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유족인사와 유족들과 참가자 2백 여명의 헌화시간이 있었음.

- ▣ 평통사,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봉호 장관에게 ‘국방 예산 증액요구를 거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라’라는 항의서한 전달.
- ▣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측 마리톤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다시 극우 보수단체들이 차량을 이용해 대북 비방 방송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이에 북측대표단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의 우익 보수 분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감히 우리의 생명인 최고 수뇌부를 헐뜯는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며 책임있는 남쪽 당국의 공식사과와 주동자 처벌, 신변 보장, 재발방지 보장 등을 강력요구.
- ▣ 남과 북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6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의,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하다.
- ▣ 만복정에서 소식지 편집모임 가짐. 김미성, 박정범, 이승미, 하재광 참석
- 27**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일부단체의 일련의 항의들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치안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요청.
- ▣ 핵문제와 불가침 등 ‘한반도 현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내 17번 각 광폐이위안에서 중국대표 왕이 외교부 부부장 인사말로 열리다. 첫날 각 국 대표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폐기 4단계안을 제시하다. ① 중유공급 재개→핵포기 선언 ② 불가침조약→핵사찰수용 ③ 조·미·일 수교→미사일해결 ④ 경수로 완공→핵폐기 단행 등.
- 28** 민가협 485회 목요집회 탑골공원에서 열림. 서경순 전 상임의장의 여는말, 구속자, 수배자 가족의 사례, 권오현 공동의장의 미국의 전쟁 책임과 대학생들의 반전시위내용 등 발언.
- 29** 한양대에서 미공병대 스트라이커 부대 반전시위 구속자 대책위 주최로 미군부대 반전평화 구속자 석방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리다. 권오현, 노수희 의장 등 구속자 석방 촉구 발언이 있었음.
- 30~31**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2003년 회원 여름수련회가 가평군 대성리 국민관광단지 기차길 산장에서 30~31일 이틀동안 열리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70여명이 청량리역에서 기차로 대성리로 떠남. 김호현, 이창희, 이일규회원이 미리 현장에 가서

준비. 도착과 함께 장기수선생님, 민가협 어머니, 아기들 등 방배치하고, 6시 실내 강당에서 여름수련회 개막식이 열림. 송창학 양심수후원회 기획간사 사회로 민중의례, 오신분소개, 여는 말(조순덕, 권오현), 격려말씀 임방규(통일광장 공동대표),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이어 4·30 석방자 하영옥씨와 이석기씨 누님 이경진씨의 인사말이 있었음. 사회자의 조편성 발표(4개조), 김호현 수련회준비위원장의 일정표 발표, 김숙희 회원의 생활수칙 선서로 여는 마당 마침. 7시부터 저녁식사를 하고 조별모임이 있었고 8시 30분부터는 김호현 사회로 8·15 민족대회에 다녀온 방북보고(채은아, 이기욱, 권오현)가 있었고 이어 이용준 회원이 진행하는 시사퀴즈시간이 있었음.(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성격에 맞는 내용의 문제풀이) 마지막까지 틀리지 않은 회원은 변의숙, 모지희, 하재광, 심주이. 잠시 쉬었다가 9시 30부터 이용준 회원 진행으로 조별 경연대회는 1조(민족공조), 2조(반전평화), 3조(스트라이커), 4조(백두산)가 겨루어 김호현, 이정규 운영위원과 박경순(4·30석방자) 심사위원의 최종평가 결과는 3, 4조가 공동 3위 1조가 2등, 2조가 1등을 했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늦게 도착한 박경순(영남위원 사건), 임태열(민혁당 사건)씨 등 4·30 석방자 인사말이 있었음. 밤 11시부터는 이창희회원 진행으로 술과 음식, 노래와 춤이 있는 대동놀이가 있었고 자정이 지나 첫날 일정 마침. 31일엔 7시 일어나 아침체조, 산책, 8시 아침식사, 9시 노혁회원 진행으로 명랑운동회 자주·통일 팀으로 나누어 비행접시 날리기, 풍선멀리 던지기, 사탕넣기, 판뒤집기 등 자주팀이 우승하다. 10시 40분 김숙희 회원 진행으로 강정구 교수(후원회 감사)의 ‘6자 회담과 한반도 정세’ 강의를 듣다. 11시 50분 이번행사 최고 인기자 투표와 폐막식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되다. (인기상-조순덕, 시사퀴즈 4명, 조별상, 특별상, 조순덕, 이영, 임방규, 변숙현) 12시 30분 모든 행사 마치고 나루촌가든 식당으로 옮겨 점심식사이어 전세버스로 ‘마석 열사묘역’으로 이동. 권오현 안내로 문익환 목사님 묘소 등 열사묘역 참배를 끝으로 1박 2일의 모든 일정 마치고 15시 서울로 떠나옴.

- 31** 전 세계 174개 나라 대학생들의 우정과 화합의 축제 2003 대구 여름유니버시아드 대회 11일 동안의 열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 ▣ 양심수 94명에 영치금 1만원씩 보냄.
- ▣ ‘밀’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50,000 보냄.